

▶▶(주)대우엔지니어링



플랜트 수출을 위한 싱크 탱크(Think Tank)

(주)대우엔지니어링(대표 윤근형·사진)은 대우그룹이 지난 1976년 울산화력발전소 건설 수주를 위해 그룹 내의 엔지니어링 능력을 종합·재조직해 탄생한 회사다.

창립 후 첫 프로젝트였던 울산화력발전소 4, 5, 6호기 건설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대우엔지니어링은 이를 발판으로 수단타이어 공장 프로젝트에 참여, 국내 최초로 플랜트 수출의 일익을 담당하기도 했다.

또한 서울지하철 3·4호선 참여를 통해 토목분야로, 제철화학 플랜트 프로젝트 등을 통해 화공분야로, 포스코 제2분괴 공장 건설을 통해 환경분야로 진출하

는 등 엔지니어링 회사로서 그 영역을 넓혀나갔다.

1980년대에 들면서 제2차 오일쇼크와 경기침체 등으로 국내외 사업 환경이 악화되자 대우엔지니어링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1981년 초 체질개선에 착수, 수주활동을 활성화하고 신규 사업 분야를 개척해 Offshore 분야와 리비아의 토목사업 분야, 열병합 및 지역난방, LNG 인수기지, 철도, 신호사업 등에도 진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후 대우엔지니어링은 1984년 전엔지니어링과 경남엔지니어링을 흡수·통합·운영하며, LNG 사업 분야와 석유화학 플랜트 분야에도 참여하게 됐다.

1990년 9월, 대우엔지니어링은 대우그룹 계열에서 독립해 임직원 중심의 사원주주화

를 통한 경영체제로 재 출범했다.

독립경영 체제 구축 후 대우엔지니어링은 타 그룹 계열사에 대한 영업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분야를 개척하는 한편 설계 위주의 사업에서 벗어나 턴키 수행능력을 갖추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를 통해 분리 독립 2년여 만에 수주와 기성이 1000억원대에 진입하는 등 양적 성장을 이뤘을 뿐만 아니라 내용면에서도 그룹 의존에서 탈피하고 시장 다변화를 이룩함으로써 성장의 새 전기를 맞았다.



1997년 11월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대우엔지니어링은 사업 부문별 책임

경영 정착화, 조직의 슬림화 및 인력의 정예화, 은행차입금의 전액 상환과 전 임직원 퇴직금 중간 정산제 도입, e-비즈니스 업무환경 구축 등을 실현, 경영 내실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었다.

또한 해외시장을 적극 개척함으로써 대만,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멕시코 등에서 많은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수주 6330억원, 매출액 4450억원을 달성한 대우엔지니어링은 올해 수주 7200억원, 매출 6300억원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대우엔지니어링은 포스코건설과 협력, 상생의 협약을 맺음으로써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하고, 성장의 폭을 넓힐 수 있게 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